



귀뚜라미 그룹, 정읍시에 장학금 3000만원 전달

귀뚜라미 그룹(회장 최진민)이 25일 정읍시 발전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형우 부시장을 비롯해 (주)귀뚜라미홀딩스 송경석 대표, (주)귀뚜라미 박규태 전북지사장, 정읍호스피스 전상수 대표가 참석했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을 통해 전달되는 이번 장학금은 시가 발굴한 저소득층 및 학업 우수 학생 28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송경석 대표는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 '두번째 백년가약'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 사회참여 문화활동 '두 번째 백년가약' 프로그램을 2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는 사회참여 문화활동 '두 번째 백년가약'으로 젊음 적 생활고로 혼란을 지르지 못한 고령부부 3쌍에게 전통혼례 사진촬영을 제공했다. 이 사업은 고령부부에게 소중한 첫 설레임의 추억을 만들고 일상 속 무더웠던 서로에 대한 감정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져, 노년의 활기찬 인생 제 2막을 열어주고자 했다.

참여한 3쌍의 고령부부들은 긴 시간 촬영이였음에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며, 전모 어르신은 "젊을 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 혼례식 대신 물 한 잔 따놓고 시작해, 결혼 사진은 꿈도 못 꿰던게 늘 미안했는데, 허했던 마음 한 구석을 이제야 채운 것 같다. 예쁜 마누라 얼굴, 달고 달도록 많이 바라봐 줄 것이다 오늘 기분 최고다"라고 행복함을 표했다.

참여자들 모두 촬영 내내 고령부부도 서로에 대한 마음민은 젊은이들 못지 않다는 것을 몸소 표현해 주었다. 더불어 행복한 추억이 담긴 액자와 앨범을 전달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지난 25일 남원시청, 유해환경감시단 남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청소년 미약음료 교육·홍보 및 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은 계절별 테마별(신학기, 청소년의 달, 방학, 수능 등)로 관계 기관과 함께 진행하며,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및 유해업소 업주·종업원 계도 활동 청소년 비행신고 다발지역·학원가 주변 등 주요 장소 실질적 순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유해업소 밀집지역 및 시내권 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약음료 피해사례 및 약물 중독 위험성 등을 중점 교육하고 홍보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소방서, 구급대원 CPR 팀워크 훈련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25일, 심정지환자 병원 전 단계 자살순환회복을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CPR 팀워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은 병원 내 심정지 치료보다 복잡하며 여럿이 손을 맞춰야 하는 경우 팀원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구급대원 간, 그리고 의뢰지도 의사와 영상을 통한 팀워크가 이십십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비협조적인 가족이 있는 상황 팀 멤버가 부족한 상황 등 긴박한 현장을 재현해 대원별 임무분담과 팀워크를 점검하고, 전문인명소생술마네킹(Resusc Anne Simulator)을 활용해 설정된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기도확보술 정맥로 확보 등 전문처치술을 적용하는 방식을 훈련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바다의 날 기념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쳐

군산시·공공기관·바다환경지킴이 등 120여명 참여 해양쓰레기 8톤 수거

군산시가 바다의 날을 기념해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25일 2023년 바다의 날을 기념해 민관합동으로 신치항 및 새만금방조제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신치항 주변과 신치항에서 이미도까지의 방조제 구간에서 이뤄졌다.

시를 비롯해 전라북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수협, 해양환경공단, 수산자원공단, 농어촌공사, 관내 어촌계 및 수산업경영인군산지역연합회 등 공공기관과 섬 주민,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등 총 120여명이 참여해 폐어구와 페스티코폼, 폐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8톤을 수거했다.

시는 바다의 날을 맞아 펼친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시에 매년 고군산에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잠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및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2,700여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올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연안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은호 항만해양과장은 "오늘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정화활동으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협력하여 연안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장수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2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 날은 연등 및 향초 등 화기 사용량이 증가해 화재 위험성이 있고 전통사찰은 대다수 목재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한편더러 위치상 산림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어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67명·소방차량 등 장비 51대를 투입해 오는 26일 18시부터 30일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사찰·산림인접마을 등 화재 우려 지역 예방순찰 강화 △산림인접마을 및 주요시설 관계자 비상소화장치 교육 등 안전지도 △전통사찰·목조건축재 및 주요 행사장 소방력 근접배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전 직원 비상응소태세 유지 등이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주대, 교내 구성원 대상 글로벌대학 사업추진 설명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4일 IT아트홀에서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대학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주대의 글로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내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로, 글로벌 대학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내 구성원은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과 선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전주대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며, 5년 이후의 시간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기 위한 고민과 대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는 글로벌 대학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사업추진 및 지역과의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설명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교내 구성원들의 창의력과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경찰, 청소년참여 정책자문단 발대식 전개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지난 24일 2023년 청소년참여 정책자문단 발대식을 전개했다.

이날은 고창고등학교 12명, 고창여자고등학교 5명, 고창북고등학교 4명, 감호중학교 1명 등 22명과 지도교사가 참석하였으며, 순서로는 단복 및 위촉장 수여, 경찰서장 격려사, 기념촬영 및 112상황실 견학 순으로 이어졌다.

청소년참여 정책자문단은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정책 수립 시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경찰 고유의 창구가 필요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여성청소년계는 2023년 관내 초·중·고 및 경찰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하여 개별 신청을 받아 선발했고, 올해는 관내 4개 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돼 총 26명이 선발되었으며 전년보다 7명이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청소년참여 정책자문단은 학교폭력·소년비행 관련, 경찰관과 합동 순찰·점검, 홍보·캠페인봉사·체험활동을 함께 실시하고, 회의 시 도출된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별 로 검토·조치되며, 논의 안건 중 실현 가능한 사안은 경찰과 자문대원이 함께 수행하게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리츠칼튼 싱가포르 호텔, 전주대 방문 채용 면접

리츠칼튼 싱가포르 호텔 관계자들이 전주대를 직접 찾아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리츠칼튼 싱가포르 호텔의 F&B Promotion Manager 케이트 송과 F&B Assistant Director 코리 타레니오, 인사부서 HR Assistant Director 시나 레옹 등 호텔 관계자 3명이 직원 채용을 위해 전주대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리츠칼튼 싱가포르 호텔 관계자들은 24~25일 이틀에 걸쳐 호텔경영학과 재학생들을 상대로 취업 면접을 진행한 뒤 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 문인협회 '창립 62주년 기념 문인협회 비전 워크숍' 가져

한국문인협회 진안지부(지부장 신필복)는 진안문화의 집에서 문인협회 비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비전 워크숍은 전북 문인협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의 문학·예술계 종사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 문인협회 회원들은 진안군 대표 명소인 운일암인일암, 용담댐 등을 답사하며 진안군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창립 6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그간 전북 문인협회의 활동과 업적을 되돌아보며 더욱 발전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어서 전북 문인들의 참여로 구성원 시·수필 낭송과 주제발표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전북 문인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와 예술계의 발전과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은 "비전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 간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시고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재가암환자·가족 위한 '동행' 성료

진안군은 2023년 상반기 재가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함께하는 행복나눔 '동행' 프로그램을 성료하며 마쳤다

행복나눔 프로그램 '동행'은 재가암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안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예, 요리체험, 족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4회에 걸쳐 운영됐다. 강의식 교육보다 직접 체험을 통해 힐링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3년 11월 25일 등록(간) (9)68-912 전주시 완산구 7-1내부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